

“회장님들 반할 만하네”... 럭셔리·정숙성·역동성 ‘삼박자’



제네시스 G90

외관, 플래그십 세단 이미지 강조 비행기 1등석 연상되는 넓은 2열 나무소재 실내 고급스러움 극대화 민첩하고 강력한 퍼포먼스 매력

뒷좌석에 앉아 의자를 뒤로 눕히자 에르고 릴렉싱 시트가 포근하게 몸을 감쌌다. 특히 주행중 노면 진동과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뱅앤올룹슨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편안함을 전달했다. 그야말로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된 듯 조용하면서도 묵직한 균형 있는 안정감으로 이동하는 동안 ‘쉼의 시간’을 보내며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었다.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이 새롭게 돌아왔다. 디자인 변화는 물론 실내 공간도 한층 럭셔리해졌다.

지난 11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와 제네시스 수지에서 열린 ‘G90’ 미디어 행사를 통해 차량을 경험했다. G90이 일명 ‘회장님 차’로 불리는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이번 행사는 쇼퍼드 리브(운전기사가 운전해주고 뒷좌석에 앉는 체험)을 경험한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쇼퍼드 리브는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와 제네시스 수지까지, 시승은 제네시스



제네시스 G90 전측면.

/양성운 기자

수지부터 곤지암리조트를 거쳐 수원 컨벤션센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진행됐다.

G90의 가격은 8957만원(개별소비세 3.5% 기준)부터 시작한다. 이날 시승한 차량은 G90 기본모델 ‘3.5T-G Di AWD 20인치 빌트인캠’에 풀옵션을 적용한 차량으로, 가격은 1억3030만원(개소비세 3.5% 적용시 1억2887만원)이다.

우선 G90 외관은 신규 크레스트 그릴과 날렵한 두 줄 램프로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상화한 전면부와 럭셔리 세단의 인상을 주는 파라볼릭 라인, 개방감을 고려한 DLO 라인이 조화를 이룬 측면부, 얇고 긴 두 줄의 리어램프와 당당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의 후면부로 외장 디자인을 그려냈다. 제네시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플래그십 세단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차량에 다가가지도 도어 속에서 핸들이 나오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도어 핸들에 손을 대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차량에 탑승해선 ‘이지 클로즈’ 버튼을 누르자 문이 스스로 닫혔다.

본격적으로 쇼퍼드리브를 경험하기 위해 뒷좌석에 앉았다. 2열은 비행기 1등석을 연상케할 정도로 넓고 편안했다. 뒷좌석 문에 있는 버튼을 누르자 의자가 뒤로 젖혀지고, 리클라이너 버튼을 누르면 조수석이 앞으로 움직이며 풋레스트가 내려오고, 뒷좌석의 레그레스트가 올라가 발을 올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었다.

실내 곳곳의 가죽 소재는 매우 고급스러웠고, 곳곳에 세련된 나무 소

재를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다. 암레스트에 적용된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공조, 시트, 마사지, 커튼, 조명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암레스트 수납공간 내부에는 휴대폰 등의 소지품을 살균할 수 있는 ‘UV-C LED’ 램프도 적용됐다. 또 과속방지턱이나 불규칙한 노면 주행에도 진동이나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G90에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 장치는 주행 조건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에어 스프링의 강성을 3단계로 조절한다.

차량의 주행성능을 경험하기 위해 운전석으로 이동했다. G90은 편안하기만 한 차는 아니었다.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강력한 퍼포먼스도 제공했다. 5미터가 넘는 크기임에도 민첩한 움직임을 자랑했다. G90은 가솔린 3.5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 출력 380마력(PS), 최대 토크 54.0kgf·m를 갖췄다.

또한 후륜 조향 기능을 적용해 좁은 골목이나 유티시 뒷바퀴가 최대 4도까지 돌아가 회전반경을 줄여줘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고속 구간에서 반자율 주행 기능을 설정하자 운전자가 주행에 개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다. 트렁크 공간은 이전 모델보다 조금 좁아졌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국조선해양

5110억 규모 선박 5척 수주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5110억원 규모의 선박 5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시아 소재 선사 2곳과 7900TEU급 LNG추진 컨테이너선 3척, 5만 톤급 PC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PC선 계약에는 옵션 2척이 포함돼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이번에 수주한 LNG추진 중형 컨테이너선은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며, LNG 이중연료 추진엔진을 탑재해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를 만족할 수 있다.

또 PC선은 현대베트남조선에서 건조돼 2023년 하반기에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소비자 뽑은 디자인 입는다

비스포크 냉장고가 소비자 선택을 받은 디자인을 반영한다.

삼성전자는 공모전 ‘#BESPOKE랑데뷰’에서 대상 수상 작품을 실제 냉장고 패널로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자신만의 취향과 개성을 담은 디자인을 적용하고 싶어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1114개 작품을 받아 2만8000여명 소비자의 온라인 공개 투표를 통해 우수작을 선별했다.

대상 작품은 조경민 작가의 플로팅 링스였다. 독창적인 기법과 안정감 있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패턴으로 디자인 전문가들의 심사와 소비자, 인플루언서들의 투표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전사’ 기법을 활용했으며, 네이비 컬러에 골드, 그레이 컬러로 둥근 선을 겹겹이 쌓아 주방 공간을 마치 갤러리처럼 연출할 수 있다.

플로팅 링스 에디션 패널은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와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3도어에 적용 가능한 세트 구성 30세트 한정판으로 판매된다. 패널 세트의 가격은 출고가 기준 120만원이다.

/김재용 기자

LS전선아시아, 작년 사상최대 실적 달성

매출 28%, 영업이익 75% 증가 베트남 봉쇄 악재 딛고 호실적

LS전선아시아가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 성공했다.

LS전선아시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7435억원에 영업이익 282억원을 달성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 28%, 영업이익 75% 증가한 것이다. 베트남이 봉쇄정책을 펴면서 사업에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최대 실적 달성에 성공하

며 저력을 확인했다.

LS전선아시아는 “베트남 정부의 전면 봉쇄 정책으로 프로젝트 수주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으나, 베트남 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과 버스덕트 등 신사업의 수익성이 궤도에 오르면서 최대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는 베트남 경기 회복과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고성장으로 고부가 전력 프로젝트의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UTP 설비 증설을 통

한 통신 제품 판매 확대와 버스덕트(Bus duct) 신규 제품의 출시 등에 힘입어 올해도 재차 최대실적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S전선아시아는 작년 초 싱가포르 시장에 6500만 달러 규모의 배전급 전력 케이블을 납품한다고 밝힌 데 이어 베트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2차에 걸쳐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해저케이블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주 확대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 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LS전선아시아 베트남 법인. /LS전선아시아

한편 LS전선아시아는 LS-VIN A, LSCV 등 베트남 2개 생산법인과 미얀마 생산법인(LSGM)의 지주사이다.

‘연비 굿’ 신형 니로, 사전계약 스타트

기아 복합연비 20.8km/L 국내 SUV 중 연비 가장 높아

기아가 이달 출시 예정인 ‘디 올 뉴 기아 니로(이하 신형 니로)’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했다. 사전계약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신형 니로는 2016년 1세대 니로 출시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2세대 모델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기아의 비전이 담긴 친환경 전용 SUV 차량이다.

이번 신형 니로는 ▲3세대 플랫폼으로 넓어진 공간과 향상된 주행 안정

성 ▲개선된 파워트레인 탑재로 국내 SUV 중 가장 높은 복합연비 달성 ▲환경 친화적인 소재와 기술 적용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한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및 편의 사양 ▲SUV 특유의 역동적이고 트렌디한 디자인을 반영한 외장과 고급감 넘치는 실내 디자인 등을 통해 ‘필환경’ 시대에 더욱 가치 있는 차량으로 거듭났다.

우선 기아는 신형 니로에 3세대 플랫폼 기반의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전장 4420mm(기존 대비 +65mm), 축간거리



기아 신형 니로.

2720mm(+20mm), 전폭 1825mm(+20mm), 전고 1545mm(+10mm)의 커진 차체로 실내 공간성을 넓혔다.

기아는 신형 니로에 첨단 인포테인먼트 신시야를 비롯해 공조 시스템과 편의 사양을 적용해 최상의 실내 환경

도 제공한다. 신형 니로 사전계약은 스마트스트림 G1.6 하이브리드 모델 3개 트림으로 진행한다. 가격은 ▲트렌디 2660만원 ▲프레스티지 2895만원 ▲시그니처 3306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쿼드 인버터’ 인덕션 출시

LG전자가 더 많은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덕션을 내놨다.

LG전자는 ‘쿼드 인버터’ 기술을 적용한 인덕션 전기레인지어를 1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쿼드 인버터 기술은 가열 성능이 떨어지는 용기도 음식을 2배 이상 빠르게 조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인버터 코일에 전류를 통과시키는 입구인 반도체(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 IGBT)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방식으로 용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LG전자는 용기 가열지수 5인 저효율 인덕션 용기로 성능을 확인했다. 3300와트 디오스 전기레인지어로 조리한 결과 조리속도가 2.3배 빨랐다. 국제 시험인증기관 UL에 검증도 받았다.

/김재용 기자